

중국인 학습자의 확인의문문 억양 연구

구려나

Qiu Lina. 2017. 6. 30. **The Korean Intonations of Chinese Learners: Focused on Intonation of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 *Bilingual Research* 67, 31-6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ntonations of Chinese learners, when they are using the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of Korean. But the previous studies, there are a lot of problems. Such as they tried to use Chinese's general interrogative sentence - the '嗎' interrogative sentence to explain the Korean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 the '-지요' interrogative sentences.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嗎' interrogative sentence in China is not use as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That is, they were not based on the same grammatical concepts and function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s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 So they could not get a satisfactory result when comparing Korean and Chinese's intonation. And another problem is they considered the Chinese tone has affected the intonation of Korean's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 but did not researched it in depth.

In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the rationality of choosing '-지요' interrogative sentence and '嗎' interrogative sentence. And then refer to previous studies and materials to write Korean & Chinese experimental materials. After that, interviewed and tested 110 respondents, used praat6023 to analyze experimental data.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to reveal the intonations of Chinese learners, when they are using the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of Korean. And also I tried experimented to prove that, intonation will be affected by the Chinese tone characteristics, syllable changes rules, light tone rules and other reasons, when Chinese learners are using the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of Kore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onfirmative interrogative sentence(확인 의문문), intonation(억양), transferences of Chinese tone(중국어 성조 전이), syllable changes rules(음절 변화규칙), light tone rules(경성 변음규칙)

1. 서론

세계 언어에서 성조가 없는 언어들은 많지만 억양이 없는 언어는 없다¹⁾. 다만 언어마다 억양이 가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할 때 해당 언어의 억양도 함께 배워야 한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발화에서 억양은 아주 중요한 역할²⁾을 맡고 있다. 한국어 학습에서 억양에 대한 습득이 중요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억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관습과 다른 억양으로 발화하여 모어 화자들에게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처럼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서는 한국어의 정확한 억양도 함께 익혀야 한다. 만약 억양을 잘못 이용하면 화자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어의 경우, 같은 문장이더라도 억양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를 만큼 매우 복잡하다. 구본관(2015:59)에서 ‘일하러 갔어?(↗)’와 ‘일하러 갔어?(↘)’는 동일한 의미문이지만 억양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는 상당히 달라진다고 하였다. 전자처럼 끝을 급격히 올리는 경우에는 ‘일하러 간 사실’에 대한 놀람 또는 경멸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처럼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설마 일하러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한국어 의미문이라도 억양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이런 억양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이로 보아 억양의 습득도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1)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http://wals.info/chapter/13>(검색일자: 2017.04.06)

2) 김선철(2005:9-10)에서는 억양이 문법적 기능, 태도적 기능 그리고 화용론적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김서형(2013:128)에서는 화자가 ‘억양’에 의해 발화의 공손성을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억양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중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억양에 관한 고찰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억양 실태와 억양 실현에 미치는 요인들만을 많이 다루었다.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의 억양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확인의문문의 억양을 살피기 위해서 한국어 ‘-지요’의문문과 중국어 의문사 ‘嗎’에 의해 실현된 의문문과 대응시켜 연구하고 있는데 (황현숙, 2004:166; 정명숙, 2005:357 등), 이런 대응 관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문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중 의문문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우선 한국어 의문문을 서정수(1994:367~411)에서는 내포된 의미에 따라 크게 일반의문문, 확인의문문 그리고 특수의문문 세 가지로 나눈다. 그중에서 한국어 확인의문문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유형이며, ‘-지요’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편 중국어 문법 교재들(呂叔湘, 1979; 劉月華외, 2001; 黃伯榮·廖旭東, 2011)에 따르면 중국어의 의문문은 의문형 어조사(嗎, 呢, 啊, 吧)에 의해 문장을 부드럽게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의문형 어조사에 의해 실현되는 중국어 의문문은 주로 판단(判斷)의 문문, 특지(特指)의문문, 선택(選擇)의문문, 정반(正反)의문문 4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중국어 판단(判斷)의문문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화자가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때 사용되는 의문문이다. 전자는 주로 어조사 ‘嗎’를 많이 쓰는 반면에, 후자는 어조사 ‘吧’만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의문문의 내적 의미 및 기능을 고려하면 한국어의 ‘-지요’의문문은 중국어의 ‘嗎’의문문이 아니라 ‘吧’의문문과 대응시켜야 한다.

한편 음성학 측면으로 보면 중국어 판단 의문문에서 쓰이는 어조사 ‘嗎’의 억양은 무조건 상승한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이런 억양을 가지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억양을 대조하여 살피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억양 습득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모국어의 전이라고 보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게 살피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고는 ‘-지요’의문문과 ‘吧’의문문을 대응시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억양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한-중 피험자를 선정하여 인터뷰 및 실험 조사를 한 다음,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6023을 통해 그들의 억양 실태 특징을 자세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살핀 다음에,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의 억양과의 억양 비교와 각 단계별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비교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지요’의문문의 억양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에 관한 고찰은 2000년부터 국어학 분야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억양에 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태연(2001)에서는 발음 교육을 위한 억양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였다. 또한 정명숙(2002, 2005), 곡향봉(2005)에서는 중국인의 억양 오류가 중국어의 성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논의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황현숙(2006 7, 1)에서는 중국인의 의문문 억양 실현 오류의 고찰을 통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명숙(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다섯 가지 초분절소 오류 유형을 지적하여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갈명·김선정(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평서문, 의문

문, 명령문, 청유문의 기본 억양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와 모국어에 의한 억양전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화자의 화용적 의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억양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도 이조아(2010), 예풍(2015), 이명진(2015), 장혜진(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실태와 억양에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황현숙(2004)에서는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문문 억양은 모국어에 갖고 있는 억양적 요소, 즉 단어 강세, 성조, 약센트구의 억양 유형, 문미 억양의 특징 등에 모국어의 간섭을 받았다고 명시하였다. 권성미(2011)에서는 중간언어의 입장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의 실현 양상을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송윤경(2012)에서는 중국인의 요청/거절 화행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 실태를 고찰하였다. 오재혁(2014)에서는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간에 억양 실현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김태경·백경미(2016)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화에 나타난 운율을, 특히 관형구성 합성명사와 관계절 구성에서 강세구 경계 위치와 성조 패턴 등의 운율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모어 화자와 대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오선화(2016)에서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 문두 강세구와 문미 억양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습자가 중간언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여러 억양 오류가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어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의 억양 연구를 살펴보면 억양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를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한국어 억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호영(1996)과 Jun(1993, 2000)이다. 이호영(1996:227)에서는 한국어에는 ‘낮은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높내림조, 낮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 등 9개 핵억양과 ‘수평조, 내림조, 오

름조, 오르내림조' 등 4개의 말토막 억양이³⁾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서 '-지요'를 포함한 확인의문문의 경우는 주로 낮은 수평조, 높내림조, 낮내림조, 오르내림조 핵억양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Jun(1993, 2000)에서 한국어는 L%, H%, LH%, HL%, LHL%, HLH%, LHLH%, HLHL%, LHLHL%와 같이 9개의 억양구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요'의문문의 경우는 LHL%로 속하게 된다고 했다. 정명숙(2002)에서는 억양 유형으로 L%, H%, LH%, HL%의 네 가지를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정명숙(2005:358)에서는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이 긍·부정 의문문은 H%, 의문사 의문문은 LH%, 확인 의문문은 HL% 유형으로 실현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전이 영향으로 이 세 가지 의문문 모두가 H%형의 억양으로만 실현한다고 제시하였다. 황현숙(2006L)·오선화(2016)에서 '-지요'의문문의 억양은 LH% 억양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일반의문문의 억양과 같은 H%억양으로 실현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용어 차이는 있지만 '-지요'가 사용된 확인의문문은 의문문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하강하고 마지막 음절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억양 유형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어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은 '강승강' 억양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성조 전이(전명숙 2002, 2005; 황현숙 2004; 곽향봉 2005; 김태경·백경미 2016 등), 한국어 숙달도(권성미 2011; 오재혁 2014)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에 대한 연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중국어 확인의문문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한국어의 '-지요'의문문을 중국어의 '嗎'의문문과 대응시켜 대조 연구가 이루어진 것,

3) 이호영(1996:221)에서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핵억양이라고 하고 말토막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말토막 억양이라고 한다.

한국어 억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록 중국어 성조 전이를 지적하였지만 더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 등은 연구에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피험자를 선정할 때 그들의 성별, 출신 지역, 언어 능력,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에 따라 1~2급 증명서를 소지한 학습자를 초급, 3~4급 증명서를 소지한 학습자를 중급, 5~6급 증명서를 소지한 학습자를 고급 화자로 구분하였다. 1급 단계인 중국인 학습자들은 아직 발음 규칙이나 간단한 문법을 배우는 과정이라서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지요’의문문은 1급 단계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급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은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 있는 초급(2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20명,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각 4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20대 피험자만 선정하고, 그중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출신 지역은 넓은 지역으로 선정하였지만, 모어 화자는 모두 광주 출신으로 선정하였다. 정명숙·조위수(2010)에서는 학습 지역 방언의 억양도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습득에 부정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A지역 방언의 억양을 습득한 중국인 피험자와 B지역 모국어 화자의 억양을 비교하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에 있고, 그들의 일상 언어 환경이 광주이기에 억양 비교 결과의 정확성과 타당

성을 고려해서 연구 대상인 모어 화자도 광주 출신, 광주에 활동 중인 원어민에 한정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억양 실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모국어 성조의 전이 영향이라고 하였다(전명숙 2002, 2005; 황현숙 2004; 곽향봉 2005; 김태경·백경미 2016 등). 그러나 중국어의 성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확인의문문을 표현할 때 중국어의 성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곧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을 모두 두 팀으로 양분하여, 팀1에 속한 중국인 피험자들에게는 한국어 실험 자료만 제시해 주고, 팀2에 속한 중국인 피험자들에게는 한·중 실험 자료를 모두 제시해준다. 이렇게 양분한 의도는 중국인 학습자가 대응한 중국어 대화 표현의 유무에 따라 한국어 대화를 실현할 때 수반한 목표 억양 실태가 어떤 차이 혹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밝혀보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피험자 인적사항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4) 중국은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自治區)와 4개의 직할시(直轄市), 2개의 特別行政區, 총 34개의 성급이상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华北地區: 北京市、天津市、河北省、山西省、內蒙古自治區

东北地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华东地區: 上海市、江蘇省、浙江省、安徽省、福建省、江西省、山東省

华中地區: 河南省、湖北省、湖南省

华南地區: 廣東省、海南省、广西壮族自治区

西南地區: 重慶市、四川省、貴州省、雲南省、西藏自治区

西北地區: 陝西省、甘肅省、青海省、寧夏回族自治区、新疆维吾尔自治区

港澳台地區: 香港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台灣省

<표 1> 피험자 인적 사항

<표 1-1> 한국인 피험자

원어민	여1	여2	여3	여4	여5	남1	남2	남3	남4	남5
나이(세)	25	29	29	27	29	28	24	28	27	28
출생지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표 1-2> 중국인 학습자(초급 단계)

팀1	피험자	여 1	여 2	여 3	여 4	여 5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나이(세)	20	20	21	23	22	21	23	24	22	22
	출생지	江蘇	黑龍江	江蘇	浙江	河南	江西	浙江	山東	山東	黑龍江
	언어(급)	2	2	2	2	2	2	2	2	2	2
팀2	피험자	여 6	여 7	여 8	여 9	여1 0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나이(세)	23	22	23	20	21	25	23	23	22	22
	출생지	江蘇	山東	江西	江蘇	山東	山東	山東	江蘇	山東	江蘇
	언어(급)	2	2	2	2	2	2	2	2	2	2

<표 1-3> 중국인 학습자(중급 단계)

팀1	피험자	여 1	여 2	여 3	여 4	여 5	여 6	여 7	여 8	여 9	여 10
	나이(세)	24	24	25	24	27	21	25	28	26	28
	출생지	吉林	安徽	河南	廣東	山東	浙江	新疆	遼寧	河南	浙江
	언어(급)	3	3	3	3	3	4	4	4	4	4
	피험자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나이(세)	22	26	25	23	24	24	21	23	22	25
	출생지	黑龍江	江蘇	浙江	河北	遼寧	黑龍江	江西	河南	北京	廣西
	언어(급)	3	3	3	3	3	4	4	4	4	4

40 이중언어학 제67호(2017)

팀2	피험자	여 1	여 2	여 3	여 4	여 5	여 6	여 7	여 8	여 9	여 10
	나이(세)	23	20	23	26	20	22	23	21	29	26
	출생지	黑龍江	黑龍江	河南	黑龍江	上海	黑龍江	遼寧	山東	內蒙古	山東
	언어(급)	3	3	3	3	3	4	4	4	4	4
	피험자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나이(세)	27	27	22	25	21	24	22	23	22	27
	출생지	黑龍江	福建	河南	河南	安徽	黑龍江	河南	山東	上海	河北
	언어(급)	3	3	3	3	3	4	4	4	4	4

<표 1-4> 중국인 학습자(고급 단계)

팀1	피험자	여 1	여 2	여 3	여 4	여 5	여 6	여 7	여 8	여 9	여 10
	나이(세)	22	23	27	22	27	24	27	25	25	21
	출생지	廣東	山西	浙江	江蘇	廣西	江蘇	山東	浙江	山東	湖南
	언어(급)	5	5	5	5	5	6	6	6	6	6
	피험자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나이(세)	25	25	25	21	20	23	25	23	27	26
	출생지	浙江	吉林	黑龍江	浙江	廣西	湖北	浙江	廣東	陝西	山東
	언어(급)	5	5	5	5	5	6	6	6	6	6
팀2	피험자	여 1	여 2	여 3	여 4	여 5	여 6	여 7	여 8	여 9	여 10
	나이(세)	20	20	21	22	21	20	27	28	28	28
	출생지	四川	江蘇	湖南	山東	江蘇	山東	廣東	黑龍江	廣西	福建
	언어(급)	5	5	5	5	5	6	6	6	6	6
	피험자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나이(세)	24	23	23	23	25	26	27	29	23	28
	출생지	貴州	江蘇	黑龍江	陝西	河南	河南	河南	黑龍江	山東	河南
	언어(급)	5	5	5	5	5	6	6	6	6	6

3.2. 연구 자료

중국인 학습자의 확인의문문의 억양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장 유형으로 비교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문법적 측면·음성학적 측면에 따라 한국어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을 중국어 확인의문문인 ‘吧?’의문문과 대응시켜 연구 자료를 구성하였다. 실험 자료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먼저 선행연구에서의 실험 자료(황현숙, 2004:166; 정명숙, 2005:357)를 참고하였고, 피험자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2급 이상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김영규 외 2012ㄱ, 2012ㄴ; 양영희 외 2014ㄱ, 2014ㄴ; 나은영 외 2014; 이정연 외 2012, 이수행 외 2012)도 참고하였다. 곧 실험 자료 작성 시에는 다음 <표 2>와 같이 피험자들이 이미 학습한 문법을 이용하였다.

<표 2> 억양 실험 자료

실험 자료(한국어)	實驗資料(中國語)
A. 화요일에 수업 있어요?	A. 星期二有課嗎?
B. 아니요. 없는데, 무슨 일이에요?	B. (不), 沒課.有事嗎?
A. 시간 괜찮으면 영화 보러 같이 갈래요?	A. 有時間的話一起去看電影吧?
B. 미안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B. 不好意思.我得提交報告書.
A. 보고서요? 언제까지 내야 하죠?	A. 報告書?截止到什麼時候呢?
B. 수요일까지요.	B. 到星期三為止.
A. 아 그래요? 많이 힘들지요?	A. 啊,這樣啊?很難吧?
B. 예, 한국어로 보고서를 쓰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B. 是的,用韓語寫報告書太難了.
A.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A. 我能幫上什麼忙呢?
B. 아니요. 괜찮아요.	B. 不,沒關係.

위의 실험 자료 중에 확인의문문인 “많이 힘들지요?”와 “很難吧?”를 목표 발화로 선정하였다.

3.3. 연구 방법

본고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 간의 억양 실태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성조의 전이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을 다시 양분하여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대조 실험을 할 때 피험자들의 정보 공유를 막아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단계의 팀1과 팀2의 실험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인 피험자들이 ‘-지요’의문문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인터뷰를 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주로 중국인 피험자들이 ‘-지요’의문문을 배운 배경, 문법적 인식, 억양에 대한 이해, 언어생활에서의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하였다.

실험 자료를 녹음하기 전에 각 단계 중국인 피험자들의 언어 실력에 따라 적절한 연습 시간(초급 2분, 중급 1분, 고급 없음)도 주었다.

녹음 질을 고려해서 본고는 실험할 때 비교적 조용한 교실 환경에서 녹음을 하였다. 실제 조사의 편리함과 녹음의 질을 고려하여 조사할 때 Sony사의 ICD-PX440 보이스레코더/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녹음 자료는 모두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6023을 통해 음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모어화자 10명의 100발화,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20명의 300발화(팀1의 100발화, 팀2의 200발화),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40명의 600발화(팀1의 200발화, 팀2의 400발화), 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40명의 600발화(팀1의 200발화, 팀2의 400발화), 총 1600발화에 대해서 Praat6023을 이용하여 음성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의 목표 발화 총 160개의 억양을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도 모두 전사하고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계한 다음에 목표 발화를 표현할 때 목표 억양 실현이 가능한 중국인 피험자에 대해서만 2차 인터뷰를 다시 진행하였다. 2차 인

터뷰는 주로 그들이 목표 억양에 대한 인식, 본인의 억양 실태 인식(즉 자기가 이용한 억양과 한국인 화자 간의 억양 차이도 인식), 그리고 목표 억양의 습득 과정을 다시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먼저 1차 인터뷰 결과가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의 ‘-지요’의문문에 대해 문법적 인식과 해당 억양의 이해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2급 단계인 중국인 피험자들이 ‘-지요’의문문은 의문문의 일종이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은 비록 2급 단계 문법이라도 초급 단계인 피험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한 문법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급 단계부터 ‘-지요’의문문은 확인의문문임을 차차 알게 된다. 그러나 중급 단계의 정답률(3급: 33.3%, 4급: 50%)을 보면 반수 이하의 중국인 피험자만 이 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급 단계에 도달하면 정답률이 높아지지만(5급: 65%, 6급: 90%), ‘-지요’의문문에 대해서 확인의문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아직 존재한다.

피험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억양 유형 및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피험자 억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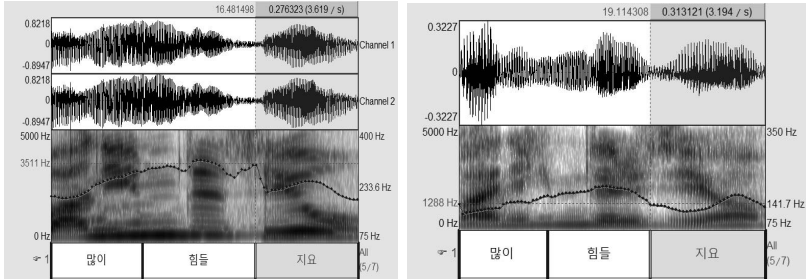
단계 \ 실태	상승 (명/%)	하강 (명/%)	강승 (명/%)	승강 (명/%)	강승강 (명/%)	합계 (명/%)
모어 화자	0	0	0	1/10	9/90	10/100
초급 단계	10/50	4/20	3/15	3/15	0	20/100
중급 단계	5/12.5	10/25	14/35	8/20	3/7.5	40/100
고급 단계	3/7.5	10/25	9/22.5	3/7.5	15/37.5	40/100

<표 3>을 보면 중국인 피험자들이 ‘-지요’의문문을 발화할 때 주로 ‘상승, 하강, 강승, 승강, 강승강’ 총 5가지 억양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5가지 억양을 간단하게 말하면 상승 억양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 양태이고, 하강 억양은 지속적인 하강 추세를 보인 양태이다. 강승 억양은 ‘-지요’가 사용된 확인 의문문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하강하고 마지막 음절이 하강하는 억양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일 경우는 승강 억양이 된다. 강승강 억양은 ‘-지요’가 사용된 확인의문문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하강하고 마지막 음절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억양, 소위 말하면 본 연구의 목표 억양이다.

<표 3>을 보면 90%의 모어 화자들의 ‘-지요’가 사용된 확인의문문은 강승강 억양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단계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가진 억양 유형도 달라진다. 본고는 중국인 피험자의 억양 특징을 자세하게 제시하기 위해 한·중 피험자들의 억양 실태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의 중국인 피험자의 목표 억양 실태도 비교를 한다.

4.1. 한·중 피험자의 억양 실태 비교

성별, 발화 속도, 말투 등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실험 결과를 보면 90%의 한국인 피험자가 ‘-지요’의문문을 발화할 때 아래와 같이 강승강 억양이 수반된다.



(여자)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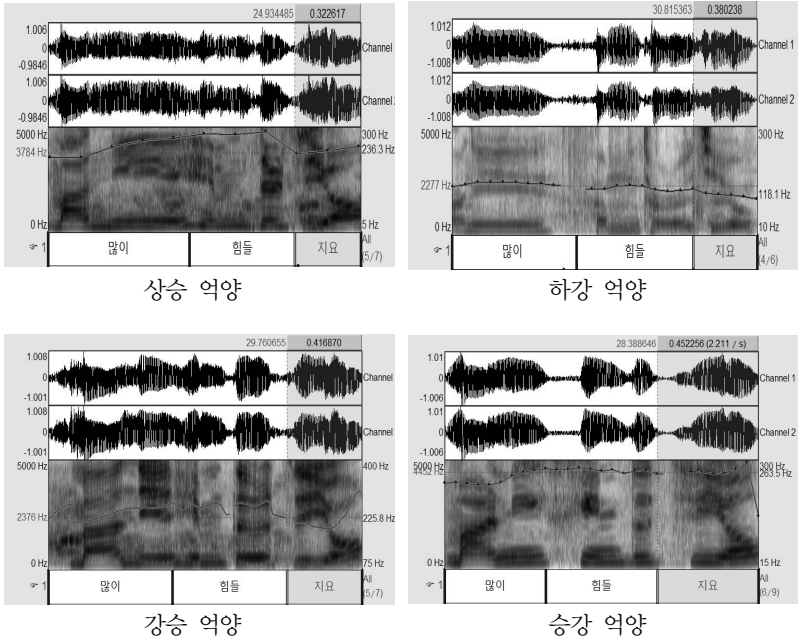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 피험자 억양 패턴

<그림 1>을 보면 같은 발화임에도 남자보다 여자의 억양 곡선 변화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남녀 간의 억양 차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억양 패턴을 정리하는 과정에 피험자들의 억양 변화 곡선을 최대한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조역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모어 화자와 달리, 제2언어 학습자로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목표 억양을 도출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먼저, 한국어 학습 시작 단계에 처해 있는 초급 단계의 피험자들은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억양으로 발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1차 인터뷰 결과를 보면 비록 극소수의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지요’의문문의 억양은 다른 의문문의 억양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급 단계의 반수의 피험자들이 ‘-지요’의 문문은 일종의 의문문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목표 억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런 인식으로 초급 단계에서 50% 이상의 피험자들이 목표 발화를 간단한 상승 억양으로 실현하고 있다. 또한 초급 단계의 피험자들이 목표 발화를 할 때 상승 억양뿐만 아니라, ‘하강, 강승, 승강’ 억양도 각각

5) 심소희(2013:206)에서 사람에게 따라 조역의 높기와 넓이가 달라서 남자는 약 100~200Hz이고, 여자는 약 150~300Hz인데, 설령 같은 사람이라도 말할 때의 감정이나 어조에 따라 조역의 높낮이와 넓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20%, 15%, 15%의 사용률을 보인다. 따라서 초급 단계부터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실현은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의 4가지 억양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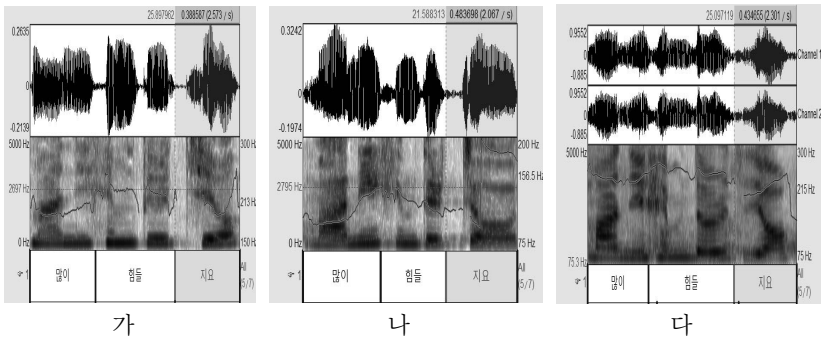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인 학습자 억양 패턴(초급)

<그림 2>를 보면 초급 단계인 중국인 피험자들이 한국어 화자처럼 ‘-지요’의문문을 발화할 때 강승강 억양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대신에 주로 ‘상승, 하강, 강승, 승강’ 4가지 억양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요’의문문을 발화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상승 억양뿐만 아니라 ‘하강, 강승, 승강’ 억양으로 각각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초급 단계부터 중국인 피험자

의 억양 변화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억양도 계속 모방하므로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서 억양 실태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상승 억양은 초급 단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다른 억양의 실현 수는 초급 단계보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7.5%의 중급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가 다음과 같이 ‘강승강’ 억양으로 ‘-지요’의문문을 발화하였다.



<그림 3> 중급 단계 강승강 억양 패턴

<그림 3>과 같이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3명이 강승강 억양으로 ‘-지요’의문문을 발화하였다. 그런데 중국인 학습자의 ‘강승강’ 억양은 모어 화자의 ‘강승강’ 억양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인 학습자의 음절 간의 휴지 현상⁶⁾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절 휴지의 정도에 따라 억양 실현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 보아 음절과 억양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이 있는

6) 본고에서 말하는 음절 휴지 현상은 음절과 음절 사이에 진짜 끊기가 아니다. 전문 음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면 이런 음절과 음절 연결이 매우 미약해서 청각적으로 마치 끊어버린 상태인 것 같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 음절 특징 전이 때문에 목표 억양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성조에 따라 음절과 음절 간에 연음 없이 잘 구분되고 있다. 이런 모국어 음절 특징 전이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화에서도 마치 음절과 음절이 떨어져 발음되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런 음절 휴지 현상을 다룰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음절 휴지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한·중 두 언어의 음절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진호(2014:120)에서는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12가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 가. V형: 아, 어, 오, 우...
- 나. CV형: 가, 너, 도, 루...
- 다. SV형: 야, 여, 와, 워...
- 라. VS형: 의
- 마. VC형: 악, 언, 읊, 울...
- 바. CSV형: 가, 너, 묘, 류...
- 사. CVC형: 각, 난, 단, 탈...
- 아. CVS형: [조구기](조국+의), [바틱](밭+의)...
- 자. VSC형: [회웁니다](회의+입니다), [의원테](의의+인테)...
- 차. SVC형: 약, 연, 읊, 응...
- 카. CSVC형: 격, 년, 명, 별...
- 타. CVSC형: [노닌](논의+는), [하빌](합의+를)...

- 이진호(2014:120)⁷⁾

7) ‘C’는 자음, ‘V’는 모음, ‘S’는 반모음을 가리킨다.

이진호(2014:120)에서는 12가지 음절 유형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최대한 음절 유형이라고 한다. 즉 표준 발음법에서 한 형태소 안의 음절 유형뿐만 아니라 ‘아, 자, 타’처럼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음절 유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와 달리 중국어의 음절 변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다.⁸⁾ 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소희(2013:170)에서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귀납하였다.

$$(C) + (V) V (V) + (N, P)$$

- 심소희(2013:170)⁹⁾

앞의 음절구조 공식에 따라 중국어는 주로 V형, VV형, VVV형, CV형, CVV형, CVVV형, VN형, VP형, VVN형, VVP형, CVN형, CVP형, CVVN형, CVVP형 14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한 형태소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어의 음절 변화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도 음절 간의 연음변화가 없이 음절과 음절끼리 잘 구분되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중국어의 음절 특징의 전이 영향을 받아 한국어 발화에서도 음절과 음절을 끊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음절끼리의 휴지 현상도 역시 억양 실현에 영향을 준다. 앞에 제시한 중국인 피험자들의 억양 패턴을 통해 음절 사이 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억양의 휴지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인 화자들의 발화가 많은 경우 모어 화자들에 비해 딱딱한 느낌을 준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3명의 중국인 학습자가 ‘-지요’의문문을 발화할 때

8) 보통 중국어에서 한 음절은 하나의 한자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 ‘兒話音’의 경우, ‘花兒(꽃), 樹兒(나무)’ 등은 글자가 두 개이지만 [huar], [shur] 하나의 음절로 발음된다.

9) ‘C’는 자음, ‘V’는 모음, ‘N’는 비음, ‘P’는 폐쇄음을 가리킨다.

‘강승강’ 억양으로 실현되었지만 모어 화자보다 억양 곡선의 변화가 더욱 명확하다. 이런 현상도 역시 중국어 성조의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곧 중국어의 성조는 선율형(旋律型) 성조이며¹⁰⁾ 높음과 낮음, 상승과 하강, 직선과 곡선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음악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운율 규칙이 제2언어인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작용하여, 모어 화자보다 중국어 화자의 억양 곡선 변화가 더욱 많고 억양 실현이 더욱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2차 인터뷰를 통해 이 3명의 학습자가 언어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억양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점차 억양을 배워간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자신 억양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하지만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것으로 표현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중급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이 모국어 성조의 영향과 목표 억양을 아직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이므로 이런 부자연성은 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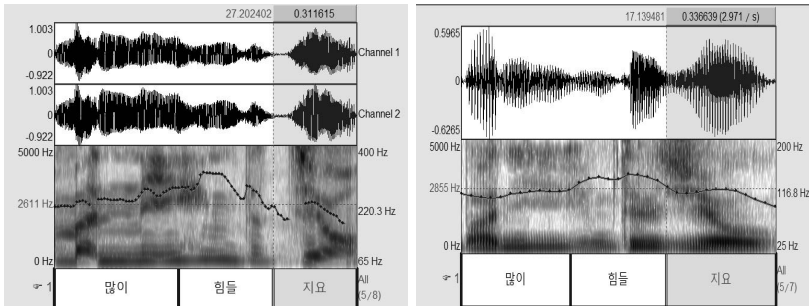
중급 단계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요’의문문의 실현에서 여러 억양을 극복하지 못하고, 강승강 억양으로 ‘-지요’의문문을 실현하더라도 모국어 화자의 억양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단계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목표 억양을 습득하는 시작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의 목표 억양에 대한 인식의 불명확성, 중국어 성조 전이 영향, 음절 휴지 영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도출된 억양은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학습자가 목표 억양을 배울 때 ‘인식→모방→실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1차 인터뷰에서 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이 목표 발화에 대한 인식 정답률은 5급이 65%, 6급은 90%로 나왔다. 그런데 목표 발화에 대해서

10) 심소희(2013:203)에서 ‘성조 언어는 고저형(高低型)과 선율형(旋律型)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선율형(旋律型)에 속한 성조언어는 음의 높낮이 이외에 오르내림의 변화에 따라 성조를 구분한다. 성조의 음높이는 시간과 함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선율형(旋律型) 성조의 음높이는 시간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또 높기도 평평하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또 아치형을 띠거나 물결 모양을 띠 수도 있다. 마치 악보의 멜로디처럼 강한 음악형이다.’

정확하게 인식하면 목표 억양에 대한 파악도 다른 단계보다 원어민 화자와의 억양 차이가 더욱 적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 결과를 보면 고급 단계 학습자도 억양 문제가 존재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 중에 강승강 억양의 실현 수가 중급 단계보다 많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억양 양상들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단계에서 37.5%의 중국인 피험자들이 목표 발화, 즉 “많이 힘들지요?”를 발화할 때 강승강 억양으로 발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강승강 억양은 중급 단계보다 확실히 자연스러웠고, 원어민 화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의 음절 휴지 현상이 고급 단계에서 극복되는 추세가 보인다.



가 나
 <그림 4> 고급 단계 강승강 억양 패턴

위 <그림 4>에서 고급 단계 피험자의 강승강 억양 실패는 음절 휴지 여부에 따라 <그림 4>의 (가), (나)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은 11:4이다. 따라서 음절 휴지로 야기된 억양 휴지 현상은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초급 단계의 피험자들은 목표 억양을 실현하지 못하

고, 대신에 ‘상승, 하강, 강승, 승강’ 총 4가지 억양을 통해 실현된다. 중급 단계의 피험자들은 초급 단계처럼 여러 억양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7.5%의 학습자가 강승강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의 강승강 억양은 모어 화자와 비교하면 음절 휴지 문제나 억양 변화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제도 존재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37.5%의 피험자가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다. 이때의 강승강 억양 실태는 더욱 자연스럽게 음절 휴지 현상도 극복되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해당 억양 습득이 어렵지만 습득은 가능하다.

4.2. 한·중 실험 자료의 억양 실태 비교

앞부분은 주로 한국인 화자의 억양과 비교하여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의 억양 특징을 정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억양과의 비교뿐 아니라 각 단계의 한·중 실험 자료의 억양 비교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는 주로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들의 한·중 목표 발화인 “많이 힘들지요?”와 “很難吧?”의 억양 실태를 비교하여 각 단계의 억양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특히 앞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단계별 중국인 피험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중 실험 자료의 억양 실태

등급	팀	억양 실태				
		상승 (명/%)	하강 (명/%)	강승 (명/%)	승강 (명/%)	강승강 (명/%)
초급	팀1 ‘-지요’	7/35	2/10	1/5	0	0
	팀2 ‘-지요’	3/15	2/10	2/10	3/15	0
	팀2 ‘吧’	1/10	1/10	0	8/80	0
중급	팀1 ‘-지요’	3/7.5	5/12.5	6/15	5/12.5	1/2.5
	팀2 ‘-지요’	2/5	5/12.5	8/20	3/7.5	2/5
	*팀2 ‘吧’	0	5/25	0	14/70	0
고급	팀1 ‘-지요’	2/5	5/12.5	6/15	1/2.5	6/15
	팀2 ‘-지요’	1/2.5	5/12.5	3/7.5	2/5	9/22.5
	*팀2 ‘吧’	0	2/10	0	15/75	0

[피험자가 목표 발화를 잘못 도출한 상황(‘吧’ 대신에 ‘嗎’로 발화하기)이 존재할 때 ‘*’로 표시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수의 초급 단계 피험자가 목표 발화를 의문문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승 억양으로 실현하였다. <표 4>를 보면 구체적으로는 초급 단계 팀1에서 7명, 팀2에서 3명, 총 10명의 피험자가 목표 발화(“많이 힘들지요?”)를 상승 억양으로 실현하였다.

<표 4>의 초급 단계의 통계결과를 보면 가장 직관적인 것이 팀1에서 ‘-지요’의문문은 주로 ‘상승, 하강, 강승’ 3가지 유형으로 실현하는데 반해, 팀2의 억양 유형은 팀1보다 ‘승강’ 억양이 하나 더 있다. 팀2에서 왜 ‘승강’ 억양이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초급(팀1)만 제외하면 중·고급 단계에서 승강 억양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 억양은 모국어 전이의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런 억양이 중국어의 경성변음규칙(輕聲變音規則) 전이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경성변음규칙(輕聲變音規則)은 글자 그대로 경성에 의해 일어난 음성 변화이다. 이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어 경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경성은 중국인 4성 이외에 특수한 성조 유형으로써 앞 음절의 성조

영향을 받아, 원래의 성조를 쉽게 잃어버리고 매우 가볍게 읽히는 경우이다. 경성에 의해 일어난 경성변음규칙(輕聲變音規則)에 대해서는 중국어 음운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다음은 이재돈(2007:82)의 견해이다.

음평성 뒤의 경성은 次低調(2도)이다. ¹¹⁾	예) 商量[<i>ʃan</i> ¹ <i>liɑŋ</i> ⁰]
양평성 뒤의 경성은 中調(3도)이다.	예) 明白[<i>min</i> ² <i>pai</i> ⁰]
상성 뒤의 경성은 次高調(4도)이다.	예) 紫的[<i>tɕ</i> ³ <i>tə</i> ⁰]
거성 뒤의 경성은 低調(1도)이다.	예) 木頭[<i>mu</i> ⁴ <i>thou</i> ⁰]

- 이재돈(200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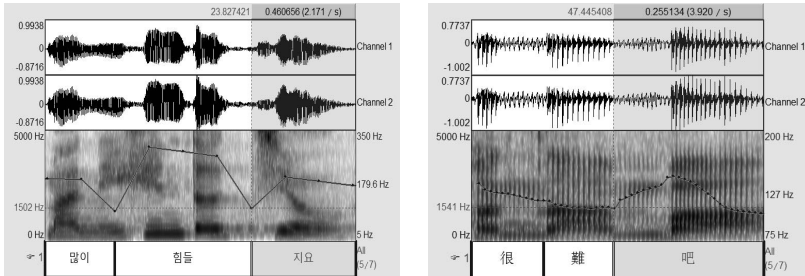
이재돈(2007)에서 제시한 경성변음규칙에 따르면 양평성(즉 2성) 뒤의 경성의 조치는 中調(즉 3성)로 변화한다. 이때의 경성의 억양 패턴은 대체로 상승되다가 다시 하강된다. 말하자면 중국어 문법책에 따르면 의문형 어조사 ‘吧’¹²⁾는 하강 억양으로 실현해야 하는데 실제 확인의문문 상태에서 경성인 ‘吧’가 단순히 하강 억양으로 보이지 않고 승강 억양으로 실현된다. 이로써 목표 발화인 ‘很難吧?’에서 2성인 ‘難[*nan*’ 뒤의 경성인 ‘吧’도 승강 억양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성변음규칙(輕聲變音規則)의 전이 영향이 확실히 각 단계 중국인 피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표 4>의 통계 결과에서 초급 단계(팀2)는 15%, 중급 단계는 20%(팀1: 12.5% + 팀2: 7.5%), 그리고 고급 단계는 7.5%(팀1: 2.5% + 팀2: 5%)의 피험자가 승강 억양으로 ‘-지요’의

11) 심소희(2013:209)에서 중국어의 성조를 가장 간편하게 묘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성조를 ‘5도제(5度制)’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5도제는 조역을 5도로 나눈 것으로서, 세로선을 사등분하여 아래에서 위로 1, 2, 3, 4, 5의 다섯 개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저(低)·반저(半低)·중(中)·반고(半高)·고(高)의 5도의 음높이를 나타낸다.

12) 중국어 어조사인 ‘吧’는 의문문뿐만 아니라, 진술문, 청유문 등 여러 문장 유형에서 사용되는데, 문장 유형에 따라 억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의문형 어조사 ‘吧’로 부른다.

문문을 실현하는 것처럼 중국인 피험자들이 모국어의 경성변음규칙의 전이로 한국어 목표 발화인 ‘-지요’의문문도 비슷한 억양으로 실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초급 단계 피험자 중에 승강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 것이다.



<그림 5> 초급 단계(팀2) 승강 억양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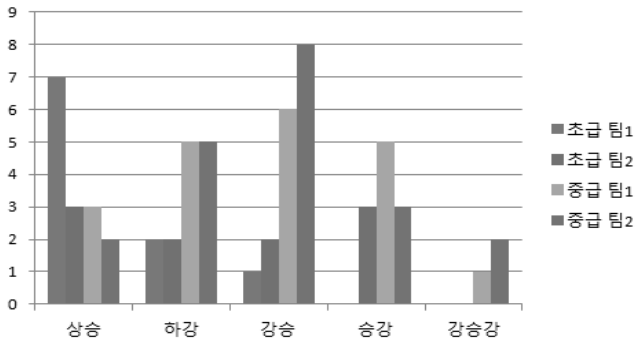
<그림 5>는 팀2의 한 피험자의 승강 억양 실태이다. 중국어의 경성변음 규칙(輕聲變音規則) 때문에 ‘很難吧?’에서 경성인 ‘吧’가 승강 억양으로 실현된다. 발화자의 이런 억양 전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어 발화에서도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지요’도 비슷한 승강 억양으로 실현하게 된다.

한편 중국어 문법책에서 경성인 ‘吧’는 하강 성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목표 발화를 할 때 ‘-지요’는 하강 억양으로 실현하는 데에 경성인 ‘吧’의 표준 성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부분 초급 단계에 처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목표 발화를 단순 의문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억양도 압도적으로 상승 억양으로 실현된다. 중국어의 경성변음규칙 전이로 한국어 목표 발화 또한 승강 억양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경성인 ‘吧’의 표준 성조도 중국인 학습자들의 ‘-지요’의문문의 하강 억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급 단계로 가면서 억양 변화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먼저 2차 인터뷰 결과를 보면 중급 단계 피험자들이 목표 발화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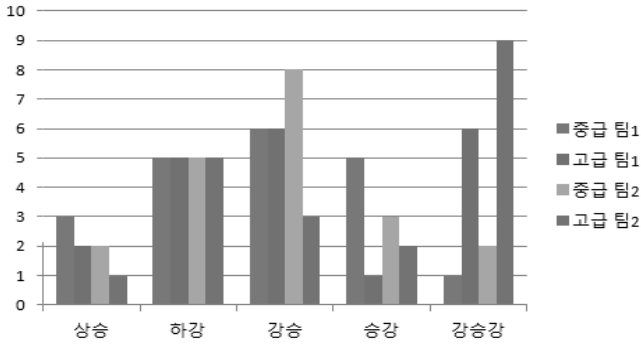
이 힘들지요?”를 확인의문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험자들이 중급 단계부터 목표 억양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그림 6>은 앞에 제시된 <표 4>의 억양 실태에 의해 정리된 초·중급 단계의 억양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림 6> 초·중급 단계의 ‘-지요’ 억양 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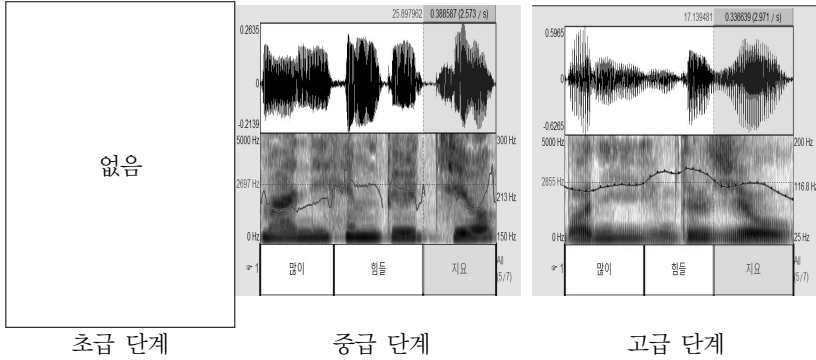
위의 <그림 6>을 보면 초급 단계보다 중급 단계에서 상승 억양을 제외 하면 기타 억양의 실현 인수가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요’의문문은 단순히 상승 억양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한편 중급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목표 억양인 강승강 억양이 나타난 것이다. 2차 인터뷰를 통해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어 화자의 억양을 끊임없이 모방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은 고급 단계인데, 이때의 중국인 피험자들은 한국어가 초·중급 단계 때보다 많이 익숙해져 확인의문문인 ‘-지요’의문문의 억양에 대한 파악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음은 중·고급 단계의 ‘-지요’ 억양 변화도이다.



<그림 7> 중·고급 단계의 ‘-지요’ 억양 변화도

위의 <그림 7>을 보면 중급 단계부터 하강 억양을 제외하면, 다른 억양 들은 각각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고급 단계의 중국인 피험 자들이 목표 발화에 대한 억양 인식이 강해지면서 목표 발화가 상승 억양, 강승 억양, 그리고 승강 억양으로 실현하는 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와 반면 ‘하강’ 억양은 중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별 차이가 없다. 특히 고급 단계에서 강승강 억양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중국인 피 험자들이 중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끊임없이 모여 화자와 비슷한 억 양을 모방하여 자기 억양을 계속 수정한 결과이다. 다음은 중국인 피험자 의 목표 억양인 강승강 억양의 변화도이다.



<그림 8> 중국인 피험자의 강승강 억양 변화 패턴

위의 <그림 8>은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의 목표 억양 변화 패턴이다. 초급 단계에서 목표 억양 도출은 전혀 불가능하고, 중급 단계에서부터 목표 억양 실현이 시작된다. 다만 중급 단계 학습자가 목표 억양을 도출할 때 억양 휴지 현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억양 곡선도 미끄럽지 않다. 고급 단계 학습자의 강승강 억양을 보면 중급 단계의 학습자의 억양보다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억양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억양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중·고급 팀2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가 팀1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보다 강승강 억양 실현 수가 더 많다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상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요’의문문에서 강승강 억양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중국인 피험자들의 억양이 모국어 성조 전이, 음절 휴지, 경성변음규칙 등 여러 원인으로 이미 화석화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지요’의문문에서 강승강 억양을 자유롭게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5. 결론

본고는 ‘-지요’의문문과 ‘ㄹ’의문문을 대응시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억양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10명의 한국어 모어화자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 있는 100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인터뷰와 실제 조사를 진행했다. 수집된 녹음자료는 모두 음성분석을 통해 목표 억양을 파악하였다.

우선 한국어 모어화자의 억양과의 비교를 보면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아직 목표 억양을 도출하지 못하고 ‘상승, 하강, 승강, 강승’ 4가지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다. 중급 단계의 피험자들은 초급 단계처럼 여러 억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7.5%의 학습자가 강승강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강승강 억양은 모어화자와 비교하면 음절 휴지 문제나 억양 변화가 부자연스럽다는 문제도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37.5%의 피험자가 모어화자와 비슷한 억양으로 목표 발화를 실현한다. 중급 단계보다 이때의 강승강 억양은 더욱 자연스럽게 음절 휴지 현상도 극복되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또한 각 단계의 중국인 피험자의 한·중 실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초·중·고급의 중국인 피험자들이 목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억양이 모국어 성조 전이, 음절 휴지, 경성변음규칙 등 여러 원인으로 목표 억양 이외에 ‘상승, 하강, 승강, 강승’ 억양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억양 화석화 현상도 존재한다.

물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억양 습득 과정에서 모국어 전이 영향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모국어뿐만 아니라 모어의 영향, 즉 학습자들의 방언 성조도 한국 억양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어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나름대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¹³⁾ 중국인 학습자

13) 안영희(2016:205)에서 廣東말은 9가지, 福州말은 7가지, 江西말은 6가지, 湖南말은 5가지 성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들이 갖고 있는 방언 성조는 제2, 제3 언어 습득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곡향봉(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본관·백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 권성미(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45, 二重言語學會, 1쪽~25쪽.
- 김영규·박은선·박정은·안병규·이선영·이영주(2012ㄱ), 『한국어1-1』, 전남대학교출판부.
김영규·박은선·박정은·안병규·이선영·이영주(2012ㄴ), 『한국어1-2』,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태경·백경미(201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강세구 실현 양상 연구, <우리말글>68, 우리말글학회, 93쪽~114쪽.
- 나은영·박근순·양영희·오미라·이정현(2014), 『한국어3』, 전남대학교출판부.
- 서정수(1994), 『국어문법』, 집문당.
- 송윤경(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 연구, <언어학>62, 한국언어학회, 145쪽~171쪽.
- 심소희 역(2000), 『중국 음운학』, 교육과학사[唐作藩(1991), 『語音學教程』, 북경대학교 출판사].
- 심소희 역(2013), 『중국어 음성학』, 교육과학사[林燾·王理嘉(1992), 『語音學教程』, 북경대학교 불판사].
- 안영희(2016), 『현대 중국어 음성학』, 한국HSK사무국.
- 양영희·오미라·유영지·최지수·최현정(2014ㄱ), 『한국어2』, 전남대학교출판부.
양영희·오미라·조혜화·진영아(2014ㄴ), 『한국어4』, 전남대학교출판부.
- 예 풍(2015),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표준 억양 교육 방안 연구: 드라마 동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희(2016),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억양 특성 연구(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1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89쪽~108쪽
- 오재혁(2014),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26, 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 35쪽~61쪽.
- 이명진(2015),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교육 방안 연구, <국제어문>64, 국제어문화회,

- 297쪽~231쪽.
- 이수행·조정민·박진철·조인숙·박수연(2012), 『이화 한국어(6)』,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재돈(2007), 『中國語音韻學』, 學古房.
- 이정연·이민경·김민정·박수연·송순미(2012), 『이화 한국어(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조아(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지도 방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장혜진(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억양 교육 항목에 대하여, <한국어학>67, 한국어학회, 193쪽~215쪽.
- 정명숙(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5쪽~241쪽.
- 정명숙(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3, 중국한국 조선어교육연구학회, 355쪽~374쪽.
- 정명숙(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 발음 교육(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39, 한국어학회, 345쪽~369쪽.
- 정명숙·조위수(2010), 학습 지역이 한국어 억양 습득에 미치는 영향(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36, 우리어문학회, 327쪽~355쪽.
- 제갈명·김선정(2010), 화용론적 기능 중심의 억양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분석, <교육문화연구>16(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91쪽~215쪽.
- 황현숙(200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태 연구: 두 가지 의문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1(2),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61쪽~182쪽.
- 황현숙(2006ㄱ),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방복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73, 한국국어교육학회, 285쪽~317쪽.
- 황현숙(2006ㄴ), 중국인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务印书馆.
- 劉月華·潘文娛·姑韓(2001), 『实用现代汉语语法(上)』, 商务印书馆.
- 劉月華·潘文娛·姑韓(2001), 『实用现代汉语语法(下)』, 商务印书馆.
- 李茂燦(2004), 漢語語調與聲調, <語言文字運用>(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57쪽~67쪽.
- 黃伯榮·廖旭東(2011), 『現代漢語(五版)』, 高等教育出版社.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2000),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version 3.1)*. http://www.humnet.ucla.edu/humnet/linguistics/people/jun/k_tobi/K-tobi.html.

62 이중언어학 제67호(2017)

구려나(邱麗娜, Qiu Lina)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1184 광주 북구 반룡로 18번길 30
전화번호: 062-530-0230
전자우편: qiulina@naver.com

접수일자: 2017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6월 3일
계재확정: 2017년 6월 16일